



이유정

LEE YU JEONG

SNS

@thisooz

인스타그램

1999.07.02

010 - 9072 - 5239

t0702@naver.com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OOZ

학력사항

- 2019.03 ~ 2021.02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재학 세부전공 프로그래밍 (4.27/4.5)
- 2015.03 ~ 2018.02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졸업

교내활동

- 2020 2020년도 졸업 전시회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분야 출품
- 2020 2020년도 졸업 전시 준비 위원회 홍보팀
- 2019 2019년도 1학기 학과 우수작 선정 및 발표 (기초디자인, 미디어테크놀로지(유니티))
- 2019 2019년도 2학기 학과 우수작 선정 (3D디자인, 영상디자인(2))

수상내용

- 2020.09 교내 2020년도 1학기 성적 우수 장학금
- 2020.07 2020 CDAK 국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공모전 디지털미디어 부문 특별상
- 2020.03 교내 2020년도 2학기 성적 우수 장학금
- 2019.08 교내 2019년도 1학기 성적 우수 장학금

툴 사용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XD, 에프터이펙트, 프리미어 프로,
유니티, 3Ds Max, 파워포인트

자격사항

- 2020.11 정보처리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2018.12 Adobe Certified Associated Photoshop
- 2018.12 Adobe Certified Associated Illustration

언어

Markup Language(html, css), JavaScript, jQuery, C#

안녕하세요.
이유정입니다.

“인생을 바꾼 가장 큰 용기”

전공을 바꾼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다른 전공은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 고등학교부터 이어온 전공으로 대학을 입학하게 된 저는 우연히 교내 디자인 대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에 관심이 많던 저는 평소 다뤄보던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도안을 제작하게 되었고 1등을 차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디자인에 더 흥미가 생기게 되었고, 저와 디자인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 전공에 대한 고민을 해본 결과 디자인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진로를 바꾸는 데 큰 용기가 필요했고, 그렇게 디자인 전공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성 그리고 선택”

새롭게 시작한 학과에서는 기획과 디자인, 프로그래밍을 종합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처음 디자인을 바라보고 입학했던 저의 뜻과 달리, 예상하지 못했던 프로그래밍 분야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오류를 마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재밌었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 도전적이면서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새로운 적성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한줄 한줄 코드를 적어가고 구현되는 과정에서 처음 겪어보는 벅찬 감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개발자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세부전공으로 프로그래밍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소통과 배움 사이”

기획, 디자인 그리고 프로그래밍까지 세 가지 분야를 함께 배우면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다양한 관점의 프로세스와 흐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를 분석하는 능력과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다지게 되었고,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원활한 협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웠습니다. 개발자와의 협업에서는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부딪히고 성장하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각 분야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개발 영역에 대한 지식의 폭과 깊이를 넓히기 위해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하여 공부하며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정적인 웹보다 동적인 웹을 구현하는 것에 매력을 느꼈고, 단순히 구현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확장성과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계획적인 성격과 뛰어난 집중력으로 한가지 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의지가 강합니다. 정답이 없는 프로그래밍에서 생각한 대로 구현되지 않을 때, 저는 오히려 자극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잠을 줄여가며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에 제 모습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더욱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커지며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개발 언어에 지금과 같은 자세로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그런 개발자로 성장하겠습니다.